

정읍시, 지명 상징 '우물' 보존 추진

지명, '우물 정(井)', '고을 읍(邑)' 정해·덕천가정마을 등 4곳 시 관리대상 지정...역사 등 홍보

정읍시가 지역 명칭의 상징인 '우물' 보존에 나섰다.

정읍시는 '우물 정(井)', '고을 읍(邑)'이란 지역 명칭의 근원인 우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명칭의 상징인 우물을 관리해 보존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9월 '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초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300개가 넘는 우물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중 30개를 1차 선별한 시는 지난 16일 시향 토문화유산심사위원회의를 통해 정해마을, 덕천가정마을, 산외 여우치 빈시암, 산외 외목마을(일명 선녀 약수) 등 4곳의 우물을 시 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정해마을 우물은 '시암바다'란 뜻으로 정읍사문화제의 채수식이 치러지는 곳이며, 덕천가정마을 우물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이 마신 우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산외 여우치 빈시암은 동진강의 발원지라는 점,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이 물을 떠 마셨다고 전해지는 정읍시 덕천가정마을의 우물.

산외 외목마을 우물은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했다는 전설인 일명 '선녀약수'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약수의 효능도 높게 평가받았다. 또 바로 옆 마을인 내목마을의 솟대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한 가치도 더해졌다.

정읍시 관계자는 "전국 시·군 중 유일하게 지역 명칭에 우물 정자가 들어가는 정읍의 상징을 보존해 우물이 가진 역사와 특징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거동불편 어르신에 '원격 협력진료'

시, 주천면 등 6개 보건지소 우선 시행...진료·자문·복약지도 등

남원시가 지리적 취약성과 거동·교통의 불편 때문에 의료이용 접근이 어려운 거동불편자와 독거노인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협력 진료'를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주천면, 금지·주생면, 대강면, 산동면, 이백면, 아영면 등 6개 보건지소에서 우선 시행한다.

사업 참여에 동의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방문간호사 간 정보통신시설(ICT)를 활용한 진료·자문·복약지도 등이 이뤄진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층은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에 따른 정기 진료를 볼 때마다 보건지소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 의료진이 가정과 경로당을 방문해 진료 및 처방, 복약지도까지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거동 불편 노인층의 편의

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역 원격협력진료사업' 공모로 관련 사업비를 확보했다.

또 원격 진료를 위한 화상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자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사업의 이해도를 높여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했다.

남원시 보건소 관계자는 "전국적 현상으로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인원이 감소되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남원시는 원격협력 진료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공백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참여도와 효용성 등을 살펴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과학축제의 장 '정읍창의과학축전' 성황

환경부스·드론·VR 체험 등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호평

정읍교육지원청이 정읍시와 함께 '2024년 정읍 창의과학축전'을 지난 18-19일 이틀간 전변 어린이 축구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정읍창의과학축전은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이라는 목표로 과학 미래기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과학을 문화로 즐길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쉽고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과학 축제 행사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정읍시 소재 3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 국립전북기상과학관 등 유관기관의 후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환경보호 주제로 운영된 ▲환경보호 한 컵 하실래요 ▲친환경 슬라임 만들기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물품 만들기 등 다양한 환경부스 체험은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얻었다.

또 정읍교육지원청 4차산업체험문화공간과 미래창작공방,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한 ▲AR·VR 체험 ▲드론(스카이리) 체험 ▲코딩로봇을 활용한 문제해결력 기르기 ▲마이크로비트 마린으로 축구 경기하기 등 미래교육 주제에 걸맞은 부스 운영으로 학생들의 탐구능력을 향상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줬다.

최용훈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정읍창의과학축전은 정읍 학생들과 학부모, 시민 모두가 신나고 즐겁게 과학과 소통하고 과학을 체험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며 "앞으로도 정읍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과학문화 활동이 풍성하게 전개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소방서, 수난사고 예방 수상구조 자원봉사자 모집

인원 10명 선발...30일까지 접수

고창소방서가 계곡 및 해수욕장 등을 찾아오는 여름철 피서객들의 물놀이 안전을 지킬 119시민 수상구조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10명으로 원서 접수는 오는 30일까지다.

활동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기간 중 33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일출·일몰 시간에 따라 탄력적 운영)며 구시포해수욕장과 동호해수욕장에서 활동한다.

지원자격은 수난구조대원은 수난구조관련 자격 소지자 및 관련업무 1년 이상 종사자, 응급구조학과 등 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이다.

또 수변안전요원은 통제선 관리, 응급처치, 안전계도 및 홍보, 미아찾기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

하고 지원자격은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사회봉사단체 회원, 의용소방대원, 지역주민 만 19세 이상이다.

이주상 고창소방서장은 "여름철 고창군을 찾는 물놀이객의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119시민 수상구조대 모집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고창군의회, 민주주의 산 교육 '어린이의회'

선동초 학생 8명 참여...학교생활 건의사항·토론·질의 등



고창군의회가 지난 20일 선동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어린이의회'를 개최했다. 임정호(오른쪽 세번째) 의장과 오세환(오른쪽 여섯번째)의원이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군의회 제공>

고창군의회가 20일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어린이의회'를 운영했다.

이번 어린이의회에는 선동초등학교 학생 8명이 참석해 학교생활에 대한 건의사항, 토론, 질의·응답 등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의회 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배우고 의회 시설물을 견학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의회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의 정치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고창군의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도 고창군의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은 "미래 민주주의 주역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대단히 기쁘다"며 "우리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고 배움의 주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해외 관광객 유치 나섰다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과 MOU...럭셔리 여행상품개발 등

남원시가 지난 17일 해외 관광홍보마케팅 추진 활성화를 위해 (주)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지역 MICE와 관광·의전·홍보마케팅 융·복합 서비스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한류문화에 관심이 높은 동남아와 중동지역 관광객 유치를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럭셔리 여행상품개발 기획 및 프로모션 추진 ▲중동·아시아권 관광설명회 및 세일즈, K-관광로드쇼 참여 ▲남원관광상품 홍보 ▲남원관광상품 개발과 판촉활동에 필요한 관광콘텐츠 제공 및 현지 홍보

비 지원 등이다

남원시는 이번 협약 체결로 전 세계 여행사 네트워크 보유 협력사 및 다양한 홍보마케팅 전문기업 (주)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 최대 장점인 다양한 문화·관광자원 홍보를 (주)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과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해외 관광시장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콘텐츠 발굴로 신규 관광상품을 기획해 많은 해외관광객이 남원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